

‘만주(북방)’, 내적 망명 또는 환대의 場*

— 白石의 ‘만주시편’의 경우

崔賢植**

I. 백석의 ‘만주’, ‘현실’과 ‘가상’의 사이	IV. ‘북방’, 서로 다른 ‘타자 환대’의 참된 장소
II. ‘북방’, ‘신화적 장소’와 ‘역사적 공간’의 사이	V. “흰 바람벽” 속 ‘갈매나무’들의 ‘환대’-결어를 대신하여
III. ‘북방’의 심상지리, 드러난 ‘중국’과 감춰진 ‘일본’	

• 국문초록

이 글은 백석의 ‘만주시편’에 담긴 망명과 환대의 가치를 논한다. 이를 위해 실제의 ‘만주’를 기억하면서도 ‘역사적 공간’과 ‘신화적 장소’를 동시에 환기시키는 “北方”이라는 시어에 주목했다. 백석은 ‘북방’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하나 되는 “새 빛날”을 엿보았는데, 세 가지의 지향이 주목된다. 첫째, 과거의 이상적인 중국문화에 대한 동경을 넘어, 서로의 삶과 공동체의 평화를 존중하는 하위자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둘째, 타자와 민족에 대한 “슬픈 마음”과 “따스함”을 보여주는 선량한 조선인을 호명했다. 셋째, 일제의 ‘언어 제국주의’에 대해 반발하며, 만주국의 일본 문인들이 강요했던 일본어로 시 쓰기를 거부했다. 백석은 선량한 동식물과 동서양의 시인을 통해 예술

* 이 글은 2023년 3월 23일~25일 개최된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3단계 제1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에서 보는 한국, 한국에서 보는 동아시아』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초청장을 보내준 중국해양대학교 이혜영(李海英) 교수님과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만주문학’을 바탕으로 백석의 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눠준 류샤오리(刘晓丽)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가의 자궁심을 뜨겁게 표출했다. 그가 끌어들이는 ‘갈매나무’는 이것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다. 이 나무는 ‘北方’의 중심에 선 ‘宇宙樹’이자 포기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체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주제어 : 백석, 만주, 북방, 내적 망명, 환대, 역사적 공간, 신화적 장소

I. 백석의 ‘만주’, ‘현실’과 ‘가상’의 사이

1940년 5월 낯선 만주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白石(1912~1996)은 “이 넓은 별판에 와서 시 한 백 편 얻어가지고 가면” 정지용과 이태준의 “『文章』을 봐 올 낯도 있”¹⁾ 겠다는 연둣빛 소식을 편집기자 정인택에게 띄웠더랬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과 대륙 문화 건설의 ‘총력전’에 돌입했던 만주(국)의 살벌한 정황은 넓게 잡아 3년간 시 10편과 산문 4편(수필 3편, 소설 1편) 하여 총 14편의 글쓰기를 허락했을 따름이다. 내심 다짐했던 100편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소출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유종호의 예리한 통찰처럼 「北方에서-鄭玄雄에게」와 「힌 바람벽이 있어」 등은 “절정에 달하는 예사로움”을 성취함으로써 백석 시세계 전반에 대해서 “대표성 혹은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기에 그 값어치가 한결 돌올하다.²⁾

백석의 만주 체험이 깊이 담긴 8편의 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첫째, 낯설고 불우한 상황에 처한 개인적 내면을 꼼꼼하게 성찰하기, 둘째, 타자로서 이민족의 풍물과 풍속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가치화하기가 그것이다.³⁾ 전자에서는 ‘만주’ 체험 자체보다는 낯선 이향의 환경이 강제하는 우울함과 좌절감이, 후자에서는 물질문명의 근대에 반하는 동양-유토피아적 상상력이 압도적이다. 물론 둘을 내향적, 외향적인 것, 또는 자기 인식적인 것, 목가적인 것⁴⁾에 각각 대응시킨다고 해도, 서로 다름없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불우한 환경을 되레 ‘시인’의 삶을 이끌고 갱신하는 운명애(愛/哀)로 표상했다는 것 말이다. 이것은 식민 현실의 중압을 견디며 ‘윤리적 타락’을 벗어나는 자기 구원의 기제, 곧 ‘내면적 모럴’로 작동했다는 점⁵⁾에서 각별히 기억해둘 만한 백석 시의 개성이자 장점에 해당한다.

현재 백석의 ‘만주시편’을 둘러싼 핵심적 논란은 두 가지로 압축될 법하다. 하나,

-
- 1) 이태준, 「백석씨가 정인택씨에게 보낸 편지」, 『서간문강화』, 박문서관, 1943, 219면.
 - 2) 유종호, 「백석-시원회귀와 회상의 시학」, 『다시 읽는 한국시인』, 문학동네, 2002, 244~245면.
 - 3) 이희중, 「백석의 북방 시편 연구」,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318~319면.
 - 4) 심원섭, 「자기 인식 과정으로서의 시적 여정-백석의 만주 체험」,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187면.
 - 5) 남기혁, 「백석의 만주시편에 나타난 ‘시인’의 표상과 내면적 모럴의 진정성」, 『한중인문학연구』 39, 한중인문학회, 2013, 38면.

이성 문제, 가정불화, 결벽증적 성격 등의 사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시인이 入滿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까닭은 무엇인가. 둘, 시인이 기록한 만주생활에서의 현실성 부족, 바꿔 말해 과거의 이상화된 중국문화를 지향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낭만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연구자는 백석의 만주행이 ‘故土’로의 귀환 욕망 약간을 빼고는, 농토 개척과 부의 축적에 관련된 ‘만주 붐’이나 새로운 ‘만주국’에서 의사-제국적 주체로 거듭 나려는 권력적 야욕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았다. 그런 만큼 이상화된 과거의 중국에 대한 향수를 엑조티시즘(exoticism)의 결과물이자 낯선 세계에 대한 보편적 호기심과 동경의 산물로 파악했다. 백석의 이런 태도는 그가 만주의 실제 역사와 현실, 그리고 만주인들에 대해 매우 무관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과거의 ‘그때 거기’, 곧 ‘이상화된 중국(문화)’으로의 회귀는 현실 도피적 성격의 ‘정신적 망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이곳에서 백석의 방랑벽과 이국취향을 개인적 습관(호사취미)을 넘어선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변종—비록 식민주의적 관점이나 태도와는 무관할 지라도—으로 파악하는 비평적 관점이 생겨난다.

이에 반해 다른 연구자는 백석의 만주행을 ‘조선적인 것’을 일체 부정하는 ‘내선일체’의 참화를 피해 ‘조선 담론’의 설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주국 ‘五族協和’의 개방성을 활용하려는 탈식민의 욕망에서 찾았다. 그러나 시인은 ‘오족협화’의 문학적 현실, 곧 ‘皇道文學’의 추구하고 달성을 위해 이미 법제화된 것이나 다름없던 <藝文指導要綱>(1941. 3)의 지도 편달이 조선어문학의 박탈과 삭제에 직결되어 있음을 예민하게 간파한다. 여기서 백석이 “현대문명 이전의 삶에 대한 공간적 은유”에 해당하는 자연적·이상적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북방’ 세계로 파고들게 되는 결정적 까닭이 발생한다. 연구자는 백석의 매우 의식적인 ‘북방’ 선택을 일제의 폭력적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또 끔찍한 ‘대동아공영’의 허구성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내적 망명’으로 규정짓는다. 그럼으로써 백석의 만주행을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잠재성을 전면화하기 위한 ‘미적 저항’의 수행으로 가치화하기에 이른다.⁷⁾ 이럴 경우, 백석의 ‘북방 의식’은 개인적 사건이나 이국취향과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 ‘정치적 무의식’, 곧 자유와 해방의 열망 가득한 ‘탈식민’의 욕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

6) 오성호, 「“그때 거기”의 꿈과 좌절」, 『백석 시 꼼꼼하게 읽기』, 경진출판, 2021, 205~221면.

7) 김재용,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만주학회, 2012, 162~166면.

양자의 백석의 만주행에 대한 해석의 차이, 곧 백석의 미학적 ‘망명’을 바라보는 입장의 다름은 다음의 문제를 초점화한다. 백석의 ‘만주시편’에 노출된 ‘현실성’의 결핍과 낭만적 ‘가상’의 과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본문의 과제이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만주에서 수행된 백석의 문학 관련 활동에 대한 맥락을 짚어보는 것으로 그의 정신사적 현황을 잠시나마 엿보기로 한다. 이를테면 만주국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능력을 논외로 친다 해도 조선어 말살과 ‘국어(일본어)’ 강제의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격렬한 거부와 실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백석의 의욕적 행동이었다. 이를테면 조선과 만주, 일본 문학자가 함께 참석한 〈內鮮滿文化座談會〉(1940.3.20)에서의 의도된 침묵, 박팔양 시집 평(「슬픔과 眞實-麗水朴八陽氏 詩抄 讀後感」(『만선일보』, 1940.5.9.~10)에서 보여준 “놓흔 시름”과 “놓흔 슬픔”을 갖춘 詩魂의 열렬한 강조, 박팔양, 유치환, 함형수, 김조규 등 만주 거주 조선시인 거리가 참여한 『만주시인집』과 『재만조선시인집』(1942)에 대한 출판 거부, 해방 이전까지 시 쓰기, 아니 시 발표의 자발적 중지를 보라. 이것은 단순히 ‘조선어’의 유지와 보존의 욕망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었다. “‘동아 공통어’의 옷을 입고 ‘국가의 언어’라는 지위”를 누리려다⁸⁾는 ‘제국 일본어’에 대한 저항 그 자체였다. 백석의 ‘고쿠고(國語, 일본어)’ 不用이 그게 ‘내선일체’든 ‘오족협화’든 ‘황국의 도’를 따르는 일제의 ‘국민정신’에 대한 전면적 거부였음이 여기서 더욱 뚜렷해진다.

백석의 언어적·미학적 저항을 적극화한다는 뜻에서 그것이 ‘초월’이든 ‘숨어들’이든 내부적 잠행과 실천의 의미가 승한 정신적 또는 내적 ‘망명’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되새겨보면 어떨까. 그것이 미학적이든 정치적이든 백석의 ‘망명’ 의식과 태도는, 해방 당시까지 이어진 시 발표의 자발적 중지에서 엿보이듯이, 스스로를 “근신과 분노와 비애”의 “심각한 고통”(「朝鮮人과 饒舌-西七馬路 斷想의 하나」, 『만선일보』, 1940.5.25.~26)으로 몰아간 핵심적 요인이었다. 이 고통스런 ‘만주시대’를 견디고 버티게 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만주시편’에 가득한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안흔 것에 슬퍼할 줄 아는 혼’, 곧 “슬픈 정신”(「슬픔과 진실」)이었다.

“슬픈 정신”은 백석이 ‘나’가 아닌 ‘타자’의 시선으로 세계의 사물과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연민과 동정의 시선과 태도를 낳고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도 그럴

8)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 「제국 일본의 언어 편제 - 식민지 시기 조선·‘만주국’·‘대동아공영권」, 미우라 노부타카(三浦信孝) 외 저, 이연숙 외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98면.

것이 ‘만주시편’은 만주인과 그들의 생활만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모닥 불」처럼 보잘 것 없으나 타자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어떤 것들의 존재와 맥락을 추적하다 보면 뜻밖의 시야가 열리고 은폐되었던 진실들이 새롭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만주시편’의 동근 사슬은 조선과 만주를 넘어 심지어 일본 내부의 하위주체(subaltern)의 참된 말을 새로 찾아내고 또 응당 ‘있어야 할 것’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석의 타자와 이민족에 대한 감춰진 의식과 맥락을 훑아내기 위해서라도 ‘망명’의 뜻을 훨씬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환대’의 개념과 잇대어 보는 해석의 유연성이 더욱 요구된다.

에드워드 사이드에 따르면, ‘망명(exile)’은 생명과 신체 보존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 일상적·관습적 논리를 거부하며 대담무쌍한 행위와 변화를 추구하는 세계와 자아의 갱신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망명자는 권력자보다는 여행자에 가깝고, 관습적인 것보다는 임시적이고 위협한 것에 더욱 끌린다. 그가 현 상황에 이미 주어진 권위보다 앞날을 위한 혁신과 실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⁹⁾ 이와 같은 상황은 망명자를 필연적으로 일상적 질서를 벗어난 삶으로 이끌며, 또 유목적이며 분권적인 생활을 더욱 소망하게 만든다. 그런 만큼 망명자는 비유컨대 봄의 잠재력만이 아니라 여름과 가을의 파토스에도 가까이 서 있게 된다. 또한 이 모순을 견디고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봄 속에서조차 “겨울의 마음”을 항상 살아가는 시선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¹⁰⁾

시든 삶이든 ‘권력(자)-현대-중심’에 대해서는 무관심(거부)하며, ‘약자-과거-주변부’에 대해서는 뜨거웠던 백석의 ‘만주시편’ 속의 연민과 애정은 분명 망명자의 시선과 태도에 가까이 서 있다. 물론 ‘만주시편’에 역력한 ‘뒤돌아보는 자’의 시선과 태도, 곧 ‘북방’으로의 귀환 욕망이나 중국의 이상적인 과거문화에 대한 동경은 미래를 획기적으로 전망하는 청년의 영혼과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오히려 “역사의 매정한 전진”에 의해 잊혀지거나 뒤에 남겨진 “영토로의 되돌아감”을 더욱 입체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의 양식’에 가까이 서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¹¹⁾ 하지만 그럼으로써 백석은 「北方에서-鄭玄雄에게」에서처럼 ‘오

9) 에드워드 사이드 저,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 마티, 2012, 77면.

10) Edward W. Said, “Reflections on Exile”,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172.

래되고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불어넣는 데 성공하게 된다. 또한 「杜甫와李白같이」에서처럼 현실을 초월하는 미적 극치의 표상으로 남겨질 뻔했던 시적 영웅, 곧 예외적 영혼들에게 '범속한 인간'의 논리,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생명의 원형과 구조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¹²⁾

과연 시인은 긍정적 의미의 '말년의 양식'에 시의 언어와 구조를 내맡김으로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혼은 복된 것”이며, 이 혼이 있어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한 “슬픈 사람”으로의 행보가 가능하다는 각성이 그것이다. 이 깨달음에는 이후 공식화되는 시인의 운명, 곧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또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흰 바람벽이 있어」) 애초에 결정지어진 시인의 본래성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 감춰져 있다. 하지만 시적 운명의 수용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낫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말”(「許俊」)의 세계로, 또 내 뜻과 힘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의 지평으로 시인을 밀어가는 절망적이어서 더욱 희망적인 시도¹³⁾의 근본적 힘으로 작동한다. 백석은 어쩌면 이와 같은 망명자의 세계에 기꺼이 섬으로써 “시인은 진실로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에 이 가운데서 즐거움이 그 마음을 왕래하는”(「슬픔과 진실」) ‘겨울의 마음’을 하나의 필연적 생리와 감각으로 내면화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백석의 ‘만주시편’에서 이 슬픔과 즐거움의 가장 빛나는 통합체로서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과 “그 따마하고 살뜰한 벼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許俊」, 『문장』, 1940. 11)을 함께 발견한다. 바로 이들의 호명과 시적 구조화에서 진정한 ‘환대’는 시작되고 맺음 된다. 그러나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석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부르는 ‘초대의 환대’가 아니라,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는” 모든 낯선 자들에게조차 자신의 세계와 내면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방문의 환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⁴⁾ 이것은, 「흰 바람벽이

11) 에드워드 사이드 저, 장호연 역, 「그 밖의 말년의 양식들」,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 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학과 예술』, 도서출판 마티, 194년.

12) 예술 활동을 통한 인간성과 생명의 새로운 가치화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사이드, 위의 글, 200면.

13) Edward W. Said, Op. cit., p.179.

14) 이곳의 ‘환대’ 개념은 김예령,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

있어」의 마지막 부분이 암시하듯이, 백석의 ‘만주시편」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삶이든 문화든, 이곳저곳에서 밀려드는 도래자와 이방인, 그리고 타자가 스스로 찾아드는 ‘열린 환대」의 場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후의 글쓰기가 백석의 그 “진지한 모색”이 가 닿은 높이와 깊이에 동참해보는 것, 그럼으로써 백석의 ‘만주시편」이라는 ‘미학적 망명」의 장에 담긴 객관적 가치와 의미를 조망해보는 것에 할애되어야 하는 이유다.

II. ‘북방’, ‘신화적 장소」와 ‘역사적 공간」의 사이

백석의 첫 만주 체험은 1938년 5월 함흥영생고보 수학여행에 인솔교사로 참여했던 것에서 찾아진다. 경로는 인천-뤼순(旅順)-신징(新京, 현 창춘)-북간도-투먼(圖們)-주올온천-함흥이었다.¹⁵⁾ 거쳐 간 곳을 살펴보면, 제국의 승전과 팽창을 상징하는 몇몇 신흥도시, 만주의 농업 개척을 대표하는 간도의 농경지 등이 함께 포함되었다. 이 행로의 숨겨진 뜻을 찾다보면, 조선의 수학여행조차 ‘공업일본, 농업만주」로 상징되는 만주 개척과 경영(=식민화)을 선전하고 각인하는 ‘국가주의적 이벤트」로 기획, 실천되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당시 조선 곳곳을 여행하며 다녀간 지역의 물정과 인심을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아프게 그려냈던 「南行詩抄」(1936), 「咸州詩抄」(1937), 「西行詩抄」(1939)의 존재를 생각하면, 시 쓰기에서 ‘만주」 체험을 제외시킨 것은 매우 뜻밖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회피의 까닭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면, “皇國정신을 감득케 하여 교육상 효과를 최대한도로 收得케”¹⁶⁾하려는 일제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도적 무시 또는 반발로 여겨진다.¹⁷⁾

그렇지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상과 짐작의 차원

씨, 2020, 182~186면 참조.

15) 정철훈, 『백석을 찾아서』, 삼인, 2019, 39면.

16) 강원지사 편집부, 「수학여행 목적지는 성역을 택하라」, 『매일신보』 1941년 9월 18일자.

17) 조운정은 『백 년 전 수학여행』(세창미디어, 2018)을 통해 일제의 ‘국가주의적 이벤트」로서 ‘수학여행」의 다양한 의미와 효과를 살폈다. 특히 일본과 만주 수학여행에 담긴 조선학생의 복잡한 반응에 주목함으로써 일제와 학교 당국의 기대를 배반하는 불협화음과 균열 양상을 밝혀냈다.

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일보』 기자로 방문했던 ‘안동’(현 단동) 체험을 생생하게 접묘한 「安東」(『조선일보』, 1939. 9. 13)은 꽤나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압록강 너머 만주의 첫 도시인 ‘안동’은 어떤 곳인가. 조선의 신의주가 그랬듯이, 그곳은 백두산에서 벌채한 나무가 뗏목이 되어 압록강 하구까지 흘러오면 그것을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용도로 가공하여 이윤과 번영을 창출하던 신흥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총칼의 병참과 거친 노동에 포섭된 遊興과 性 산업이 공존하던 도시의 기이한 구조는 그곳을 “생계 밀천을 잡아보려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기를 반복하는 “인력 대기소”¹⁸⁾와 같은 곳으로 타락시켰다. 백석은 이 흥성하고도 스산한 풍경을 ‘비’와 ‘안개’가 녹녹하게 흐르고, “콩기름 쪄리는 내음새”와 “섭누에 번디 삶는 내음새”가 번지며, “독기날(도끼날-인용자)” 버리는 “돌물네소리”와 “되광대 켜는 되양금소리”(‘되’는 중국-인용자)¹⁹⁾가 뒤섞여 울리는 장면으로 입체화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아래의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이다.

손톱을 시필하니 길우고 기나긴 창파쓰를 즐즐 끌고시펄다
饅頭꼭깔을 눌러쓰고 곰방대를 물고가고시펄다
이왕이면 쉼내노른 취향梨돌배 음퓌음퓌 씹으며 머리채 츤렁츤렁 발굽을차
는 꾸냥과 가즈런히 雙馬車 몰아가고시펄다

- 「安東」 부분

조선(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만주인의 몸치장과 복색, 일상의 습속과 식습관을 묘사한 장면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딘지 꺼림칙하다. 그렇다고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과 거기 뒤섞여들고 싶은 ‘이국취향’의 발로만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만주 복색을 하고 ‘꾸냥’으로 대표되는 만주 여성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낭만적 충동’ 속에서 열띤 이국취향을 넘어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남성의 ‘세속적 욕정’ 또는 ‘피세의 욕망’을 확인한다.²⁰⁾ 둘째, 만약 이 사실을 부인할 수

18)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182-183면.

19) 본고의 텍스트 인용은 백석, 『백석전집(개정증보판)』(김재용 편), 실천문화사, 2011.; 백석, 『정본 백석 시집』(고형진 편), 문학동네, 2007.; 백석, 『정본 백석 소설·수필』(고형진 편), 문학동네, 2019.

20) 오성호, 앞의 글, 212면.

없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시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식민주의에 물든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구설수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만주 여성의 신비한 성적 자태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만주’ 자체를 정복·지배하고 싶다는 제국주의적 식민의 욕망으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다. 이런 은유의 폭력을 안고 있는 까닭에 「안동」은 백석 시의 대표적 성취에서 곧잘 제외되는 불우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만주 여성’에 대한 동일화 욕망은 망명자로서 ‘겨울의 마음’을 살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의 감각”²¹⁾을 탐색하려는 태도와 결코 친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실의 ‘만주’와 시인 자신의 일상적 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예외적·혁신적 세계를 발견(발명)하는 지혜와 서정의 감각이 시급해진다. 백석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만주’, 아니 그 명칭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새로운 땅에 대한 ‘지도 그리기’에 나선다. 두 번째 ‘만주시편’으로 제출된 「北方에서-鄭玄雄에게」(『문장』, 1940. 7)가 그것이다. 그렇게 선택된 땅 이름 ‘북방’이 망명지로서 제대로 역할하려면 ‘지금 여기’의 현실과 그것 특유의 고유한 본질을 동시에 드러내는 시공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백석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북방’을 ‘신화적 장소’이자 ‘역사적 공간’으로 동시에 입체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아득한 빛날에 나는 떠났다
 扶餘를 肅慎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 「北方에서-鄭玄雄에게」 부분

“떠났다”는 시공간의 흐름과 교체를 분명히 하는 동사다. 이 때문에 고대국가, 자연세계, 동식물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는 ‘북방’은 권력의 부침과 문화의 교체가 빈번한 ‘역사적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약육강식의 공간을 ‘신화적 장소’로 밀어 올리는 요소가 있다면, ‘나’의 떠남을 슬퍼하고 붙들면서 잔치와 배움을 잊지

21) 에드워드 사이드 저, 장호연 역,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학과 예술』, 마티, 2008, 10면.

않던 자연사물과 이민족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의식이었다. 이것들의 이타적 행위는 연약한 존재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불확실한 삶을 (상징적으로) 멈추게 하는 원초적 삶의 효과를 낳는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야속한 타자에게 영원하며 거룩한 시간을 아낌없이 허락하는 뜻밖의 배픔을 가져온다.²²⁾ 이것이 '나'가 생의 기원이자 지속의 땅인 '변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넷날이 비롯하는때

이제는 참으로 익이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넷 한올로 땅으로—나의 胎盤으로 돌아왔으나

- 「北方에서-鄭玄雄에게」 부분

백석은 그러나 “나의 태반”인 ‘북방’으로의 귀환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정다운 식구와 이웃, “그리운 것과 사랑하는 것”, “우렘은 것”과 “나의 자량”과 “나의 힘”을 상실한 상황에 주목한다. 이 상실감은 ‘북방’을 이제는 되찾을 수 없는 좌절과 우울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까닭이 되어 왔다. 하지만 ‘북방’은 엘리야데의 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형성하는 일에, 또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역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에 기여한 장소로 파악하는 편이 옳겠다. 그럴 때 상실감은 ‘북방’을 되찾아 복된 미래의 영토로 영위하겠다는 희원의 원천으로 몸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백석의 표현대로, 해와 달, 바람과 구름이 다 늙고 파리하며 혼자 “넋없이 떠도는” 현실은 “몸에 남루를 걸치고 굶주려 안색이 창백한 듯한 사람과 한 민족에 천근의 무게”(「조선인과 요설」)를 일상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토록 슬픈 ‘나’에게는 “나의 넷 한올과 땅”, 곧 ‘너’와 ‘나’, 그들과 저것들을 낳고 기른 ‘북방’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화의 장소’로 여전히 살아 있다. ‘나’가 신화와 역사를 함께 해온 만주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고 어떤 족속이든 간에 포기할 수 없는 우정과 연대의 대상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까닭²³⁾이 여기 있다. 아무려나 ‘나’는 이 과정을

22) 멀치아 엘리야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87면.

23) 이경수, 「백석의 기행시편에 나타난 장소의 심상지리」, 『백석 시를 읽는 시간』, 소명출판, 2021,

통해 허구적인 만주국에 결코 포섭되지 않는 ‘참된 장소’인 ‘북방’에서 조화로운 과거를 현재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체화하는 ‘망명 의식’을 존재와 삶의 원리로 깊숙이 각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 「北方에서-鄭玄雄에게」를 ‘만주시편’ 전반을 관통하는 완미한 세계를 향한 서정과 서사 충동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게 되는 이유가 숨어 있다.

Ⅲ. ‘북방’의 심상지리, 드러난 ‘중국’과 감춰진 ‘일본’

‘만주시편’ 몇몇에는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시인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백’과 ‘두보’, ‘도연명’이 그들이다. 이들은 백석 자신의 ‘시인됨’을 확인하는 장치로, 또 중국의 뛰어난 음률과 이미지 문화를 거칠고 메마른 ‘만주’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호명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뒤면 사례에 대한 산뜻한 동의는 간단치 않다. 시인이 이상적 ‘북방’과 대비되는 ‘蠻地’나 ‘붉은 땅’의 형상을 짐짓 지나치거나 몰래 감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 백석은 왜 그 ‘시의 절정’들을 만주의 허허벌판에 내세웠는가라는 질문과 소명이 동시에 필요해지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흔히 詩聖과 詩仙으로 불리는 두 시인이 등장하는 「杜甫나李白같이」(『인문평론』, 1941. 4[폐간호])에 먼저 눈길이 간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 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杜甫나李白같은 이나라의 詩人也
 이날은 그어느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元宵라는떡을 입에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것인가

- 「杜甫나李白같이」 부분

뜻밖에도 ‘나’의 두 시인에 대한 동일시는 시의 뛰어난 때문이 아니다. 또 그들도 명절에 “새옷을 입고 새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떡”을 것이란 즐거움 또는 풍요로

음 때문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와 “조상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하며 거친 세파와 때서운 전란에 시달리던 고통과 상처를 달랠 것이라는 안쓰러운 동정심과 연대감 때문이다. ‘역사적 공간’으로서 ‘만주’는 과거: 술한 제왕들의 권력욕과 물욕을 위한 제물로, 현재: 천황 지배의 王道樂土만이 ‘천국’이며 ‘支那’—애초에 이 말은 중국을 폄하하는 말로 발명되고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의 영토인 한 ‘지옥’이라는 프로파간다²⁴⁾를 위한 식민의 땅으로 끊임없이 던져졌다. 특히 만주국 시대 일제는 「天國과 地獄」이라는 선전 포스터를 만주와 華北 지역 전역에 내걸었다. 이 포스터는 일제가 지배하는 ‘만주’와 ‘화북’ 일대를 ‘비무장지대’를 벌써 실현한 ‘천국’으로, 군벌과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국 본토를 ‘混亂’과 ‘敗壞’가 난무하는 ‘지옥’으로 묘사했다. 그럼으로써 일왕의 절대이념인 ‘팔굉일우’의 당위성과 미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계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제왕의 ‘과거’와 일왕의 ‘현재’는 언어의 문제에서 상당한 편차를 지니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과거에는 ‘제국의 표준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그것이야말로 제국의 힘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영광스런 표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백석은 ‘시인’이자 ‘망명자’라는 위치상 오랫동안 한 나라의 언어에 불과했던 일본어를 동양 전체를 포괄하는 ‘제국의 언어’로 강제하며 그것을 ‘유일하고도 진실한 언어’로 간주하는 ‘언어제국주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사실은 ‘오족협화’라 했지만 그 분류에 벌써 언어 차별과 서열의 의식이 분명한 ‘內地人’과 ‘滿洲系’, ‘鮮系’가 모여 1940년 3월 22일 개최한 「內鮮滿文化座談會」(『만선일보』, 1940. 4. 5~6, 8~11 6회 연재)에서 어렵잖게 확인된다.

이 회의의 주된 논점은 만주국 ‘국민문학’의 건설을 위해 조선작가도 ‘고쿠고(國語)’인 일본어 창작과 번역에 경주하라는 것이었다. 內地 출신 작가의 주장과 압박에 대해 뜻밖에도 만주인 작가도 동의를 표했는데 이것은 이채로울 것 없는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만주국의 공용어가 일본어와 만주어 이중체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계’ 작가들은 ‘황도사상’의 주입과 선전을 제외하고는 ‘만주어’의 자유로운 사용에 아무런 제약도, 금지도 없었다. 이런 이중적 압박에 대해 박팔양, 이갑기 등의 ‘선계’ 작가들은 “생활의 상이한 언어로서 그 생활의 在來로 가졌든 미묘한 것을

24)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저, 전경선 역,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2019, 130면.

독자들에게 전하기”(박팔양)가 매우 어렵다는 표현과 이해의 난점을 들어 일본어로 창작하겠다는 약속을 피해 가기에 급급했을 따름이었다. 이때 백석은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그러면 지금 만주인 문단의 현황을 말하자면 현세나 문학 경향이 엇딴스니까”라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좌담회 참석의 소임을 다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로 짐작된다. 제국의 ‘고쿠고’ 일본어 상용에 대한 거부가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만주어’ 또한 자유로운 사용을 제외하곤 그 사상과 이념, 감정의 표현에서 이미 ‘고쿠고’의 식민지가 아닌가라는 회의감의 표시이다.

과연 백석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에서 용감했고 명민했다. 해방의 시점까지 체제협력의 글쓰기를 단 한 글자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좌담회 두 달 뒤 ‘만주어’와 만주의 역사, 그리고 그곳 생활이 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하는지를 담백하게 토로한 「수박씨, 호박씨」(『인문평론』, 1940. 6)를 식민지 조선에서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미리 말하건대, 백석의 저런 의도를 깊이 새겨본다면, 이 시의 주체와 대상은 식민지 조선의 하위주체들이자 조선어 금지와 처벌의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리던 조선시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백석이 일부러 「수박씨, 호박씨」를 체제협력의 기조가 짙어지기 시작한 『만선일보』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의 물결이 언뜻언뜻 일렁이는 『만주시인집』과 『재만조선시인집』에 제출할 하등의 이유도, 의무도 없었던 것이다.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은 마음은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나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이라
 이마음안에 아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랜 지혜가 또 아득하니 오랜
 人情이 깃들인것이다
 泰山의 구름도 黃河의 물도 옛님군의 땅과 나무의 덕도 이마음안에 아득하
 니 뵈이는 것이다.

- 「수박씨, 호박씨」 부분

‘개척’의 즐거움도, ‘생산’의 기쁨도 모른 채 보잘 것 없는 “수박씨 호박씨”나 까먹는 행위는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서구의 -인용자) 침략과 식민지화 만능의 시대에 만주 땅에 민족이 협화하는 이상국가를

만들려”²⁵⁾ 했던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난한 습속은 어이없음에 대한 ‘통탄’을 넘어 당장이라도 ‘금지’시키고 싶은 시대착오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석은 다음 행에서 바로 만주(중국)의 어리석은 습속을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 긍정하고 가치화하고 있어 어떤 표현의 모순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백석의 입장에서는 만주인들이 작물 씨앗을 까먹는 행위가 존중할만한 지혜의 소산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이유는 역시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작은 씨앗들을 취해 굶주림을 면함과 동시에 입맛의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여유와 지혜를 엿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食飮’의 즐거움과 지혜를 시를 노래하는 옛 중국 선인의 모습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시 종반에 나오는 “五斗米”와 “버드나무”에 얽힌 옛 일은 ‘도연명’의 것이며,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벼개하고 누웠든 사람”은 공자의 『논어』의 일절이다. 둘 다 지혜로운 처세술과 ‘안빈낙도’의 즐거움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백석은 둘을 만주인들의 보잘 것 없는 씨앗 먹기의 즐거움으로 전유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근거만으로 백석이 ‘만주’, 아니 ‘북방’과 그곳 사람들을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어진 사람의 짓을 어린사람의 마음을 배워” 주는 존재들로 가치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백석도 잘 알았을 ‘사서삼경’, 곧 공자의 교육 자료 가운데 하나였던 『시경』의 기원과 구성 방식을 참조하면 얼마간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여기 실린 총 311편의 노래(민요)는 고명한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과 지식인의 ‘거짓 없는 마음(思無邪)’에 의해 불러진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애초에 ‘이름 없는 자’들의 서정의 발로이자 생활의 지혜가 응축된 노래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른바 ‘시인’과 ‘학자’란 그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목소리와 감정을 어려운 문자로 받아 적은 자에 불과했다는 것. 바로 여기에 도연명의 시와 공자의 말씀이 “수박씨, 호박씨” 까먹는 자들의 웃음과 동등의 가치를 부여받는 참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석이 이상적인 것으로 상상하고 가치화한 것은 무언가 ‘가진 자’들의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못 가진 자’들의 그것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북방시대’의 백석은 과연 자신의 인문학적 교양과 전공의 소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일본적인 것’에 어떤 입장을

25) 야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35면.

취했을까 하는 것이다. ‘북방’의 풍요로운 신화를 압도하겠다는 ‘왕도낙토’의 허구성과 모든 소수어—특히 정치적·문화적·생활적 지평의—를 압살하겠다는 ‘고쿠고’ 제일주의에 맞선다는 신념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일본적인 것’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입장만을 취했을까. 이것과 관련된 말과 글도 아직 찾아지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1930~1934년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이 담긴 몇 편의 시와 산문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이즉하니 물기에 누곳이젓은 왕구새자리에서 저녁상을받은 가슴앓는사람은
참치회를먹지못하고 눈물겨웠다

어득한 기습의행길에 얼굴이했습한처녀가 새벽달같이
아 아즈내인데 病人은 미억냄새나는뎃문을닫고 버리지같이 놓었다

- 「柿崎의 바다」 부분

일본 체험을 다룬 두 편²⁶⁾ 가운데 하나인 「柿崎(가키사키)의 바다」(『사슴』, 1936. 1. 20)이다. 滿船으로 흥성한 어시장과 대비되는 궁핍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느낌을 처연한 서정으로 점묘했다. 백석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거리가 멀지만,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경험했던 궁핍한 삶의 고통과 슬픔이 녹아 있다는 느낌이다. 이별과 굶주림의 결핍에 대해서조차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하위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매우 사실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인상으로 전해지는 이유인 것이다.

백석은 이들의 가난과 슬픔을 산문 「海濱手帖」(『以心會會報』, 1934)에서 ‘개’와 ‘까마귀’, ‘어린이들’의 상황에 비겨 이미 문자화한 바 있다. 이 산문은 일본의 전통적 습속과 그곳 특유의 분위가 강렬하게 묻어 있어 백석의 기록과 감정을 쉽게 공유하기 어려운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고흥진의 통찰처럼, ‘일본적인 것’의 깊은 내면을 “‘개’가 상징하는 시적, 철학적 명상, ‘까마귀’가 상징하는 죽음과 생존 본능, ‘어린이’가 상징하는 삶의 단련”을 통해 드러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세 가지 국면은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 갈래의 삶의 방식이자 의식”임은 물론인데,²⁷⁾ 백석의 예민한 자의식은 이것을 조선어로 바꿔 읽는 데 게으르지 않았던

26) 다른 한 편은 「伊豆國湊街道」(『시와 소설』 창간호(1936. 3))로, “싱싱한 금굴을 먹는 것”의 즐거움을 그렸다.

것이다.

이처럼 타자의 보편적 삶과 개성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탁월했기에 만주 목욕탕의 별거벗은 “支那人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중성에 대한 정감어린 동일화도 가능해진 것인지는 모르다. ‘북방’의 “만나라사람들”의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人生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줄아는/그 오래고 깊은 마음들”(『藻塘에서』(『인문평론』, 1941. 4[폐간호])도 좋아하고 우러르게 되는 시선과 태도가 그것이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다면, 백석의 연민과 슬픔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일본 제국 내(만주와 대만,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포함하는)에서 소외되고 억압되는 소수자나 약자에게도 큰 변함없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가 ‘만주’를 다루는 곳이니만큼, 일본인이 만주에서 체험한 결핍과 소외의 최대치를 든다면 두 가지 정도가 먼저 손에 쥘인다. ‘娘子軍’이란 별칭 아래 “시작된 여급 진군” “홍군의 예로 진군”²⁸⁾ 같은 기이한 전투 용어로 의미화되었던 최하층 여성들에 대한 거친 소비와 무자비한 경멸이 그것이다. 요리점, 술집, 유곽, 카페 등에서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팔던 이들 일본 접대부들은 ‘댄스’의 즐김조차도 재만 일본 가정주부의 그것과 차별화되어 돈벌이를 위한 매춘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되기에 이른다. 新京에 거주하며 세상 소식을 취재하고 편집하던 『滿鮮日報』의 박팔양 등과 가까웠고 만주국 국무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백석에게 이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아마도 일본인들끼리의 광란에 가까운 섹슈얼리티의 점유와 소비, ‘댄스’마저도 건전한 취미와 매춘 행위로 구분하는 차별과 소외의 폭력적 시선²⁹⁾에 대해 쓰디쓴 苦笑를 지으면서, 끔찍한 제국의 허구적 윤리에 대해 몸서리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의 대상이 된 최하위 여성들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柿崎(가키사키)’에서 마주쳤던 가난하고 고통스런 “가슴앓는 사람”이나 “얼굴이했스한처녀”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른다.³⁰⁾

27) 고흥진, 「삶의 세 가지 풍경과 새로운 문학의 신호탄」, 백석, 『정본 백석 소설·수필』(고형진 편), 2019, 28면.

28)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81~82면.

29) 林葉子, 「『滿洲日報』にみる<踊る女>-滿洲國建國とモダンガール」, 生田美智子 編, 『わたちの滿洲-多民族空間を生きる』, 大阪大學出版會, 2015, 153~158頁.

30) 한 심사자는 북방시대의 백석에 대해 영향을 끼친 ‘일본적인 것’에 대한 논의와 설명, 그 중에서도

IV. ‘북방’, 서로 다른 ‘타자 환대’의 참된 장소

‘북방시편’에서 아직은 낯선 땅에 대한 ‘이질감’을 토로하면서도 그곳을 ‘친밀한 장소’로 어떻게든 전유해보려는 ‘망명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시편은 「藻塘에서」로 보인다. 조선인 ‘나’는 “支那나라사람들”과 “발가들벗고 한물에 몸을씻”음으로써 그들을 “서로 나라가 달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친밀성은 만주인(한족과 만주족)의 ‘발가벗은 몸’에 대한 인정과 환대에서 비롯된 듯하다. 처음 만난 “지나사람들”은 조상, 언어, 의식주가 모두 다른 낯선 타인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몇 번의 대중목욕탕(‘조당’) 체험은 첫째, 그들의 ‘발가벗은 몸’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둘째, 그 목욕의 모습이 ‘한가함’과 ‘게으름’을 넘어 ‘목숨’과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방불하다는 것을 새삼 깨치게 했던 것이다. 특히 후자의 깨달음은 ‘친밀성’과 ‘환대’의 기초 조건, 곧 “얼굴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부나 표면이 아니라, 만남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 퍼져 있다”³¹⁾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환기시킨다. 백석이 말한 ‘목숨’과 ‘인생’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고 성찰하며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 꾸려가는 기본요소이다. 여기서 존재에 대한 문학적 탐구와 표현은 출발하는 것이며, 이것들을 통해 존재의 “만남을 구성하는 (기초적이며 결정적인) 조건”을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

‘북방시편’에서 이 관계 구성의 친밀성이 가장 잘 드러난 텍스트는 「歸農」(『조광』, 1941. 4)일 듯싶다. 만주국 수도 新京(현 장춘)의 신산한 생활을 떠나 만주인 농토를 소작하며 경험한 여러 사건과 느낌이 섬세하게 표현된 텍스트다. 사실 「귀농」은 백석이 감행한 ‘귀농’의 실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텍스트였다. 이에 대해 중국인 연구자 왕염려는 시인의 귀농지로 알려진 ‘白狗屯’에 대한 실제 답사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귀농’이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임시적인 것임을 밝혀냈다.³²⁾

인문학적 교양과 전공의 소양을 1930~34년 유학 시절의 글쓰기에서 가져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보내주었다. 백석의 만주 시대에서 ‘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항목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보는 한국, 한국에서 보는 동아시아』”라는 국제학술대회 주제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기 위해서였다. 객관적 논리를 보강하고 호소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일본 하위자들의 内地와 만주 경험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백석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해 보았다.

31)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말. 여기서는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87면 재인용.

사실이 그렇다면 「歸農」에서 우세한 것은 실제 체험과 현장에 주목하는 ‘사실성’이 아니라 시인의 전언에 초점을 맞추는 ‘미적 가상’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장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까.

老王은 집에 말과 나귀며 오리에 닭도 우울거리고
고방에 그득히 감자에 콩곡석도 들여 쌓이고
老王은 채매도 힘이들고 하루종일 白鈴鳥 소리나 들으려고
밭을 오늘 나한테 주는것이고
나는 이젠 귀치않는 測量도 文書도 실증이 나고
낮에는 마음놓고 낮잠도 한잠 자고싶어서.
아전노릇을 그만두고 밭을 老王한테 얻는것이다.

- 「歸農」 부분

‘노왕’이라는 별칭의 만주인 지주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키울 밭 띠기를 얻는 장면이다. 재산 많은 밭주인은 소출이나 이윤의 창출에 큰 관심이 없으므로 ‘나’에게 큰 대가도 없이 노는 밭을 내어준다. 사실 ‘나’의 관심도 배 불리는 식량 자체가 아니다. “측량”과 “문서”로 상징되는 국무원 경제부의 “아전노릇”을 그만 두고 작품을 쓰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다. 백석은 서로의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된 기쁨을 “밭을 주어” 한가한 마음과 “밭을 얻어” 편안한 마음으로 상호 연결시켰다. 시인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환대를 “노왕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나는 노새를 타고 뒤를 따르고”라고 표현했으며, 그것의 궁극적 행차를 “虫王廟”와 “土神廟”를 찾아뵈러 가는 종교적 행위로 승고화했다.

사실대로 말해, 두 사람의 행렬은 밭주인 ‘노왕’과 소작인 ‘나’의 현실적인 계급관계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을 가는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격의가 없어 보인다. 이를 고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재용은 이 장면을 “중국인과 조선인의 종족적 구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공존의 관계”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두 에스닉(ethnic) 사이에 “경제적으로도 종족적으로도” “차별이 개입할 공간이 없”³²⁾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게

32) 함영려, 「백석의 '만주' 시편 연구-만주' 체험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석사논문, 2010, 32~39면.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두 사람의 祭儀 행위를 개인의 구복과 안녕을 비는 것으로 단순화해도 문제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앞서의 ‘목숨’과 ‘인생’을 떠올리면, ‘일상의 공간’과 구분되는 ‘종교적 장소’를 찾아드는 행위는 좀 더 고차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엘리아데가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어느 곳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근원적 시공간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것, 그럼으로써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즉 ‘상징적 재생’에 대한 열망 및 현실화와 깊이 관련된다. 우리는 여기 담긴 ‘서사 충동’이자 ‘종교적 열망’을 백석의 「北方에서-鄭玄雄에게」에서 잠시 만난 적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나의 넷 한올로 땅으로—나의 태반으로 돌아”온 것, 곧 ‘북방’으로의 귀환과 그를 통한 자기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획득이 그것이다.

‘나’의 옛 ‘하늘’과 ‘태반’으로의 귀환은 단순히 자신이 떠났던 실제적 공간 및 역사와의 화해만을 뜻하지 않는다. 신과 우주, 땅과 하늘을 포함하는 자연 사물, 그리고 유한한 인간 생명에 대한 긍정적 개방과 수용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왕묘’와 ‘토신묘’는 단순한 중국이나 만주 일대의 토속신앙을 넘어 ‘거룩한 시공간과 신화’를 감추고 있는 ‘우주적 聖所’로 읽혀 무방하다. 이 영적인 공간은 하이데거가 ‘아낌 (sparing)’이라고 부른 돌봄과 관심, 곧 서로 대립되고 갈등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해시키는 진정한 장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거와 타자의 세계를 함부로 변화시키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어떤 것들 자체를 관대하게 포용하려는 특성을 장소의 성격으로 가지게 된다.³⁴⁾

이런 점에서 「歸農」에서의 종교적 행위와 신화적 장소의 발견-발명 행위는 ‘개척 만주’의 심장부 新京에서의 “아전노릇”과 생활환경, 그리고 그곳에서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백석의 신경 생활에 대한 이모저모는 그 자신의 「조선인과 요설」 및 이갑기(‘초형’)의 「尋家記」(『만선일보』, 1940. 4. 16~23)를 통해 열추 재구성된다.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東三馬路’ 시영주택의 비좁고 더러운 “토굴 같은 방”이 백석의 거처였다는 것, 이에 비해

33) 김재용, 앞의 글, 172면.

34) 하이데거의 ‘아낌’과 관련된 진정한 장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56~57면 참조.

체제협력의 관료나 상인으로 종사하며 의사-제국의 주체로 거듭난 조선인들은 비교적 넓고 깨끗한 주택들이 즐비한 ‘西七馬路’에 살았다는 것 말이다.³⁵⁾ 만주국의 ‘이등 공민’이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매우 상반된 처지의 조선인 두 부류는 서로를 외면하거나 서로가 낮봄히기 딱 좋을 만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백석은 특히 체제협력의 대가로 풍족한 일상을 누리는 ‘서칠마로’의 조선인을 가리켜 어떤 긴장과 흥분, 분노와 적막, 그리고 비애도 모두 잃어버린 자들로, 또 근신하며 침묵할 줄 모르고 “계으른놈의 실행 대신의 糊塗”인 ‘요설’에만 능한 자로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죄과를 닦으려면 “입을담을고 생각하고 노하고 슬퍼하”면서 “진지한 모색”을 앞세워 “감격할 광명”을 찾아 나서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백석의 이런 태도는 만주에 거주하는, 아니 내던져진 조선인 또는 이주민의 생활상을 떠올려보면 지극히 당연한 비판이자 주장이었는데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주의 안동, 봉천(현 심양), 신경, 하얼빈 등 식민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하인, 막노동꾼, 가게 점원, 장사꾼, 마약상, 포주 등 불안정하거나 비합법적인 직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³⁶⁾ 백석이 살았던 ‘동삼마로’의 조선인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백석은 그러나 ‘서칠마로’의 체제협력적인 조선인에 대한 날선 비판과 달리 ‘동삼마로’의 조선인들에게는 별다른 비판의 언설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만주국’에서 일등 신민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나면 기껏해야 2등, 3등 공민에 불과했던 조선인과 만주인의 낮은 신분(서열)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곤궁한 것으로 밀어갠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때문에 백석은 1936년 무렵 보편적인 조선인像으로 제시했던 가난하고 서러운 ‘나’와 ‘너’의 “엄매 아배”(「여우난골族」)들을 다시 호명하는 작업에 나서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 대신 만주 체재 상황에 걸맞게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고 “기쁨”과 “근심”을 번갈아 “앞니로 까서” “혀끝에” 무는 “어진 사람”, 곧 만주인들을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밀어올림으로써 ‘동삼마로’에 사는 불우하고 일탈적인 조선인들의 숨겨진 긍정적 부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귀농」에서 “아전노릇” 운운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해질

35) 백석의 ‘신경’ 생활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당시의 ‘동삼마로’, ‘서칠마로’에 대한 지도는 김웅교, 『서른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 아카넷, 2020, 248~257면 참조.

36)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107~108면.

법하다. 비록 ‘동삼마로’의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나, 만주국의 녹을 받는 백석 그 자신 ‘서칠마로’ 군상들의 잘못된 ‘요설’과 삶의 행로를 뒤따라 갈 수도 있다는 잠재적 오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두 글 뒤에 발표된 「許俊」(『문장』, 1940. 11)은 직장을 핑계로 ‘남루한 의복’과 ‘굶주린 안색’의 가난한 조선인들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망명자의 ‘겨울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의 응축물로 읽혀 과할 것 없을 듯하다.

눈물의 또 뱃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구피고 뒤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짓걸하는 거리를 지날때든가
 추운겨울밤 병들어누은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무릎우 어린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빼여진 억개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것이다

- 「許俊」 부분

시적 자아에 따르면 文友인 허준은 현실 저편의 “눈물의 또 뱃살의 나라”에서 ‘요설’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세상에 나드리”를 온 숭고한 聖者이다. 인용한 2~5행의 행위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쓰다듬고 감싸 안는 눈물겨운 치유에 해당된다. 물론 이것은 실제의 행위라기보다 “일등기는 소설” 속의 상상적 행위이며,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의 지혜를 상징하는 행동이다. ‘당신’의 눈물겹고 뱃살 찬란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당신네 나라”, 곧 식민지 조선의 “맑은 한울”과 “따사한 바람결”을 떠올리고 다시 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시도 포기하거나 그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해방과 생명의 운동 자체이다. 이와 같은 ‘허준’의 미학적이며 윤리적인 실천은 백석이 일찌감치 절대화했던 ‘모닥불’을 둘러싼 낮은 자들의 공동체(「모닥불」, 1936)를 더욱 간절하게, 또 더욱 스스럼없이 떠올리게 하는 ‘환대’의 진정한 장소로 백석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의 최대치는 짐작컨대 하늘이 내려준 승엄한 생명과 행복의 권리를 빼앗긴

소외된 타자들 모두를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것, 곧 그들 모두에게 합당한 자리를 다시 내주고, 그 자리의 불가침성을 선언하는 것에 존재했는지도 모른다.³⁷⁾ 이 ‘환대의 윤리’를 레비나스는 타자의 방문에, 나의 공간,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 다시 말해 낯선 타자의 도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명제화한바 있다.³⁸⁾ 이상화된 ‘허준’의 형상은 그가 벌써 아름답고 공훈한 ‘방문의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 조선의 진정한 ‘어진 사람’임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許俊」의 문맥상에 드러난 방문자와 초대자의 위치와 역할은 거꾸로 읽혀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을 법하다. 즉 소설가 허준이 시인 백석을 찾아온 게 아니라 허준이 백석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으로 말이다. 이런 설정의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온갖 선한 타자들에 대한 부름도 백석의 ‘초대’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시인의 방문으로 얼마든지 바꿔 읽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한다면, ‘허준’의 이상적 모습에서 그것 모두를 ‘조선적인 것’에 대한 자랑과 그 위엄의 표상으로, 또 그것들에 대한 열렬한 귀환의 욕망이나 방문의 호소로 읽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제 말과 조상마저 빼앗기다시피 한 ‘내선일체’의 식민지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진지한 모색”의 이상적 내용이자 그렇게 획득될 “감격한 광명”의 빛나는 모델로 보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귀농」에서 그의 마지막 행위가 밭농사 아닌 ‘주술적 공간’, 아니 ‘신화적 장소’의 “虫王”과 “土神”을 “찾아뵈려” 가는 것으로 표현된 사실도 저 희원과 깊이 연관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석은 이 과제의 완성을, 다시 말해 그것의 영광된 실현을 세속에 찌든 어른들이 아니라 “맑고 참된 마음”을 지닌 “촌에서 온 아이”에게서 찾았던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배고파 “닭의똥을 주어먹는 아이”를 향해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詩人이나 농사꾼이 될것이로다”(「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4[폐간호])라고 아낌없이 북돋고 예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촌에서 온 아이”에 대한 시인의 관심은 만주 전역에서 가난한 하위자, 그것도 불법과 일탈의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조선인들에 대한 백석의 양가적 시선과 태도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자못 중요하다. 이들과 함께 新京 東三馬路의 가난과 굴욕을 함께 했던, 또 광활한 별판의 측량 (보조)기사로

37) 김현경, 앞의 책, 247면.

38) 레비나스의 ‘환대’에 대한 개념과 설명은 김애령, 앞의 책, 260면 및 186면 참조.

일했던 백석이 ‘개척의 땅’으로 위장된 또 다른 식민의 ‘赤土’(붉은 땅)로 쫓겨 온(?) 조선인들의 불우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 인식했을 리 없다. ‘백구둔’으로의 ‘귀농’을 통한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삶의 모색, 그것을 더욱 적극화한 가난한 ‘조선 아이’의 현실 및 그의 미래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이 소소한 장면들을 불행 너머의 희망으로 삼았을 법한 조선인 하위지들의 정황이 반영된 결과물로 수용한다고 해서 그릇될 것 없다.

물론 백석은 ‘만주행’이 곧 가난과 불행의 장소 이전에 불과했음을 아프게 노래했던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나 유치환의 「나는 믿어 좋으랴」의 방향으로 시의 機軸을 돌리지 않았다. 이후 보겠지만, 「흰 바람벽이 있어」나 「南新義州柳洞林時逢方」에서처럼, 우주와 자연, 동식물, 시인 등 주변의 선한 자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절대가치를 지닌 “갈매나무”의 그늘을 그들과 함께 누리고 공유하겠다는 ‘환대의 장’을 노래하는 쪽으로 시의 방향타를 잡았다. 사실대로 말해,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한 ‘망명 의식’, 곧 생명력 넘치는 봄-여름-가을 속에서도 차갑고 매서운 ‘겨울의 마음’을 사는 것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한 타자들과 함께 “갈매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과거의 본원적 세계를 想起하거나 미래로 열린 낯선 공동체를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적 망명이든, 실질적 망명 생활이든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 시간이 확고히 지시된 망명 이전의 달력과는 현저히 다른 예상 밖의 어떤 달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또 관습적이며 고착화된 집-고향에서의 삶보다 훨씬 불연속적이며 탈중심적인 생활환경을 자청하게 된다는 것 말이다.³⁹⁾

문제는 그러나 총력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시와 산문을 막론한 백석의 글쓰기에서 “눈물의 또 벳살의 나라 사람”의 방문에 대한 뜨거운 감격도, 또 그들의 아들딸인 ‘가난한 아이’의 외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백석은 『문장』과 『인문평론』 1941년 4월호를 끝으로 그계 만주시편이든 북방시편이든 만주 경험을 담은 운율의 언어를 단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소설 「寫生帖의 삽화」(『매신사진순보』 275호, 1942. 2. 1)와 수필 「당나귀」(『매신사진순보』 294호, 1942. 8. 11)를 발표하긴 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체제협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 본연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와 당나귀의 선한 품성을 그린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총력전의 기치 아래 조선

39) Edward W. Said, Op. cit., p.186.

과 만주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일왕 친양과 보위의 목소리, 곧 기꺼이 지원병, 꼬마병정, 軍國의 여성으로 몸 바뀔 죽음을 각오하고 聖戰을 자청케 하는 끔찍한 폭력과 死靈/邪靈의 언어를 피하기 위해 작성된 매우 의도적인 자기 방어와 피난의 양식으로 간주되어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백석은 10~15여 년 뒤 이와 거의 동일한 사태, 다시 말해 시와 내면의 충만함에 대한 열렬한 희망과 미래를 어느 순간 박탈당하는 불우한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해방을 맞아 인민과 함께 진군하던 백석은 김일성 유일체제로 향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폭력성과 퇴폐성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글쓰기와 이념의 혁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 백석은 주저 없이 동시의 창작과 동화의 번역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전망을 엿보고자 했다. 그렇지만 김일성 유일체제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 시대를 맞아 그는 세상과 단절된 奧地 '三水-甲山'의 양치기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상적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라던 아이들과 영영 이별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V. “흰 바람벽” 속 ‘갈매나무’들의 ‘환대’-결어를 대신하여

백석의 '만주시편'에서 시인의 고매한 자존심과 내면적 모럴의 진정성이 가장 처연하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난 시편으로 「흰 바람벽이 있어」(『문장』, 1941. 4[폐간호])를 드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시도 마침 조선어 금지와 처벌을 공식화한 상징적 사건 중의 하나인 『문장』 폐간호에 실렸다. 이 상황에 좀 더 착안한다면, '나'의 존재감과 운명, 곧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대목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어도 괜찮겠다. 이를테면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처럼 “쉽 없는 운동이며,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고, 또 그것을 삶과 존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겨울의 마음’(망명 의식)으로 본다면 어떨까. 이 시는 잃어진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거쳐 자아에 대한 ‘슬픔’과 ‘자랑’으로 동시에 나아간다. 이 굴곡진 감정의 “쉽 없는 움직임”과 자아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고백, 곧 타자화를 거친 끝에서야 시인은 마침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가던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서 어디선가에서 끊임없이 밀려

들거나 찾아와 응성거리는 선한 타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늘이 이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
도록 만드신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잭」과 陶淵明과 「라이넬·마리아·랄케」가 그러하듯이
- 「흰 바람벽이 있어」 부분

여기 등장하는 자연 사물과 시인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막무가내로 떠나는 ‘나’를 따뜻하게 환송하고 응원하던 「北方에서-鄭玄雄에게」의 이웃과 동료들, 곧 ‘친밀한 타자’들의 변신물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그 쓰라리고 고통스런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도 멀리 떠났던 ‘나’, 곧 그들을 배반한 한때의 ‘친밀한 타자’를 계속 기다려왔음을 뜻한다. 「흰 바람벽이 있어」가 ‘나’가 ‘너’와 ‘그’를 부르는 ‘초대의 환대’가 아니라 ‘나’가 ‘너’와 ‘그’에게 다시 돌아가는 ‘방문의 환대’인 까닭이 여기 있다. 이것은 그러나 ‘나’와 ‘너’ 서로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방문과 만남에 의해 성취되는 상호적 환대의 형식이다. 왜냐하면 「北方에서-鄭玄雄에게」에서의 ‘나’-귀환과 「許俊」에서의 ‘너’-도래가 공통적으로 ‘북방’으로 상징되는 ‘신화적 장소’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비록 해방 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해질지라도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학풍』, 1948. 10)이 최후의 ‘만주시편’, 아니 ‘북방시편’으로 지목되는 것도 이러한 정황과 깊이 관련된다. 전반부의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존재의 가장 저점에 부딪혀 가며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짜김질”하는 행위는 관습의 논리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대담한 행위와 변화를 표상하는 일에 존재를 걸고 모험을 강행하는 적극적 망명자의 태도와 상당히 다르다. 어찌면 이 ‘슬픔’과 ‘어리석음’은 총력전의 시기 단 한 편의 시도 쓰지(발표하지) 못하고, 심지어 호구지책상 안동 세관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시라무라 기코(白村夔行)’로 창씨개명⁴⁰⁾했던 비극

40) 백석의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김응교, 앞의 책, 258~266면. 실제로 재만 조선인의 ‘창씨개명’은 주로 만주국 업무나 상공업 분야에서 일했던 공공 관리와 자영업자, 회사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정선태 역, 『창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

적 사태와 잇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 비참한 체험 뒤에 갑자기 들이닥친 해방이 곧바로 분단체제의 성립을 향해 차단된 시절,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특히 지식분자라면 저것들에 대한 양자택일의 선택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희망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은 자신을 늘 배려하고 아껴주던 ‘북방’의 ‘친밀한 타자’들만이 의지할 곳으로 남아 있던 형국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부분

‘갈매나무’는 ‘신화적 장소’로서 ‘북방’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일종의 ‘宇宙樹’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그것은 생명의 끝없는 출현과 지속적 갱신을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로 ‘북방’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 공간’으로서 만주국의 폐쇄적인 현실에 방불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의 성취를 위해 ‘너’와 ‘나’가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망명자의 정신이자 비전이기도 하다. ‘신화’와 ‘역사’에 동시에 얽힌 “갈매나무”와 그것의 둥근 터전을 포괄하는 말이 있다면, 「북방에서」에서 벌써 보았던 “또 한 아득한 새 넷날이 비릇하는”이라는 구절일 것이다. 백석은 “새 넷날”로 돌아와 다시 비극적 현실을 날카롭게 조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풍요롭게 꿈꾸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슬픈 사람”인 시인의 변함없는 임무, 곧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아끼는 마음”을 다하여 “감격할 광명”의 세계를 되찾거나 새로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백석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사회주의 체제의 북녘 땅에서 끝내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는 비극적 현실과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투고일: 2023.04.13

심사일: 2023.05.19

게재확정일: 2023.06.20

의 정치학』, 산치림, 2008, 267~272면 참조.

참고문헌

- 백 석, 『정본 백석 시집』(고형진 편), 문학동네, 2007
_____, 『백석전집(개정증보판)』(김재용 편), 실천문화사, 2011
_____, 『정본 백석 소설·수필』(고형진 편), 문학동네, 2019
이태준, 『서간문강화』, 박문서관, 1943
- 김애령,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김응교, 『서른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 아카넷, 202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이경수, 『백석 시를 읽는 시간』, 소명출판, 2021
정철훈, 『백석을 찾아서』, 삼인, 2019
조윤정, 『백 년 전 수학여행』, 세창미디어, 2018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멀치아 엘리아데 저, 『성과 속: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에드워드 사이드 저, 장호연 역,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학과 예술』, 마티, 2008
에드워드 사이드 저,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 마티, 2012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저, 전경선 역,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2019
미우라 노부타카(三浦信孝) 외 저, 이연숙 외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저, 정선태 역, 『창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
야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Edward W. Sai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고재봉, 「재만 시기 백석의 산문과 「흰 바람벽이 있어」의 창작 과정 연구」, 『비교한국학』 28(3),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김재용,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만주학회, 2012
남기혁, 「백석의 만주시편에 나타난 ‘시인’의 표상과 내면적 모럴의 진정성」, 『한중인문학연구』 39, 한중인문학회, 2013

‘만주(북방)’, 내적 망명 또는 현대의 場

- 심원섭, 「자기 인식 과정으로서의 시적 여정-백석의 만주 체험」,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 오성호, 「“그때 거기”의 꿈과 좌절」, 『백석 시 꼼꼼하게 읽기』, 경진출판, 2021
- 이희중, 「백석의 북방 시편 연구」,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 임염려, 「백석의 ‘만주’ 시편 연구-‘만주’ 체험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유중호, 「백석-시원회귀와 회상의 시학」, 『다시 읽는 한국시인』, 문학동네, 2002

‘Manchuria(Northland)’, A field of Inner Exile or Hospitality

— In the case of Baek, Seok’s Manchuria-poems

Choi, Hyun-sik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s of exile and hospitality in Baek, Seok’s ‘Manchuria-Poems’. To do so, it focuses on the poem’s use of the word “northland” to evoke both ‘historical space’ and ‘mythical place’ while remembering the actual ‘Manchuria’. Through ‘Northland’, Baek, Seok sees a glimpse of a “new old day” where past and future time become one, and three orientations are noted. First, he depicted the subaltern respecting each other’s lives and the peace of the community, beyond the longing for the idealized Chinese culture of the past. Second, he called for good Koreans who showed “sadness” and ‘warmth’ toward other people and peoples. Third, he rebelled against Japanese ‘linguistic imperialism’ and refused to write poetry in Japanese, which was forced upon him by Japanese literati in Manchuria. Baek, Seok passionately expressed his artist’s pride through good animals and plants and poets from the East and West. The “buckthorn tree” he embraced was a symbol that both encompassed and represented these. It was the ‘cosmic tree’ at the center of the ‘Northland’ and another name for an absolute value system that should not be abandoned.

Key Words : Baek, Seok, Manchuria, northland, inner exile, hospitality, historical space, mythical place